

전남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4년 연속 ‘A등급’

복지·보건·주거·지역사회 연결 전남형 통합돌봄 성과
AI 안부확인 등 스마트 돌봄 활용…기본사회 실현 선도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와 공공돌봄 분야의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 지역소멸에 대응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누구나 필요한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산간지역 특성을 고려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실행체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도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AI 안부확인 서비스와 디지털 돌봄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을 적극 도입해 위

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과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한 점도 호평받았다.

신미경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4년 연속 A등급은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임직원과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단순한 경영성과를 넘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 사회서비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보건·주거·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전남형 통합돌봄을 확대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통합돌봄을 더욱 고도화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과 사람 중심의 돌봄을 조화롭게 접목해 시민 누구나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동신대 산림조경학과 학생들 국회의원 표창

정원해설·환경교육·지역봉사 실천 등 공로

동신대학교 산림조경학과 학생 3명이 지역사회 정원문화 확산과 산림·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동신대는 민승원(석사과정), 이승후(3학년), 강서영(3학년) 등 3명이 최근 신정훈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정원문화 확산과 산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원 해설, 시민 대상 환경교육,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해 실무 경험을 쌓고 지역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환경 인식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동신대 산림조경학과는 이론과 실습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영커사업과 연계해 전남 지역 맞춤형 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승원



이승후



강서영

이와함께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정원관리사 양성 과정, 영산강환경대하, 나주시 정원관리사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상생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민희 동신대 산림조경학과장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해 얻어낸 값진 성과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산업체, 환경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정원 조성, 산림복지, 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 북부경찰, 정신응급 대응 협력체계 강화

자살예방센터 등 간담회…현장 대응 역량 향상·보호조치 내실화

광주 북부경찰은 최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관서 간담회’를 열고 정신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는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 관련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연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정신질환자·자살시도자 특성 이해 △최근 현장 대응 사례 공유 △보호조치 과정 유의사항 △응급입원·의료기관 연계 절차 △현장 예로사항·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기관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

도록 연락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대상자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치료 연계를 위한 협업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광주 북부경찰은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와 자살위험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대응 공백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업 및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응급 현장은 경찰의 초기 대응과 관계기관의 전문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적인 보호와 치료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북부경찰은 최근 ‘찾아가는 지역관서 간담회’를 열고 정신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광주 북부경찰서

곡성 박희에 한우농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한우 사양관리 기술 인정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곡성군은 고달면 백곡리 박희에 농가가 제2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사육기간단축부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한우 사양관리 기술을 인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전국의 우수 한우를 대상으로 도제 품질과 사양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한우 경진대회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우의 육질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사양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농가를 선정하는 행사로, 전국 한우농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서 곡성군 한우농가는 사육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면서도 우수한 육질과 도제 품질을 인정받아 사육기간단축부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사육기간 단축은 사료비 등 생산비 절감과 경영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곡성군 고달면 백곡리 박희에 (가운데) 농가가 제2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사육기간단축부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한우 사양관리 기술을 인정받았다.

효율 향상은 물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이번 수상은 곡성군 한우농가의 체계적인 사양관리 기술과 지속적인 품질 향상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곡성 한우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우수 한우 개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가 맞춤형 기술 지도와 교육을 통해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곡성=김유민 기자 hnnews1@gwangnam.co.kr

광주교통공사 ‘무더위 쉼터’ 운영 얼음 생수 나눔 등 서비스 확대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가 도시철도 역사 내 ‘무더위 쉼터’ 운영을 중심으로 하절기 폭염 대응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번 대책은 무더위 쉼터 상시 운영, 승강장 대형 선풍기 가동, ‘고객소통데이’ 연계 얼음 생수 나눔 등 3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공사는 양동시장역, 화정역, 쌍촌역 등 10개 역사 대합실에 목재 평상과 선풍기 등 편의시설을 갖춘 ‘무더위 쉼터’를 개방·운영하고 있다.

폭염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도시철도 역사에서 무료로 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무더위 쉼터 운영 역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승객 체류 시간이 긴 역사 승강장에는 총 68대의 대형 선풍기를 가동해 역 내 체감온도 저감에 힘쓰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6시, 19개 전 역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객소통데이’ 행사와 연계해 지하철 이용객과 폭염 취약계층에게 ‘얼음 생수 나눔 서비스’를 시행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0@



고흥농협은 최근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 교육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고흥농협, 지역 교육 발전 위한 나눔 실천

교육발전기금 1000만원 쾌척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가 최근 고흥농협으로부터 교육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받았다.

고흥농협은 지역농업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만원을 기탁하며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탰다.

이번 기탁금은 고흥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중고생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부터는 고흥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지원사업과 저소득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지원사업

을 새롭게 시행하는 등 교육복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 인재 육성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다.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군비 출연금, 정기회 원회비, 수시기탁 등으로 조성한 교육발전기금을 활용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인재 육성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고중석 조합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 모두의 역할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영민 이사는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고흥농협에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탁금은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사업에 내실있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